


공동체 소식



연중 제21주일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8월 기도지향

-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평협회 위원 임명 및 임명장 수여

직책	이름	직책	이름
회장	임창주 베드로	총무	고영방 스테파노
전례	최은미 아네스	재무	차호섭 요셉
선교	김인자 글라라	시설	현교정 돈보스코
구역	조지연 마리아	성모	정명숙 세라피나
교육			

■ **지난 주, 캔사스 한인공동체 ‘소프트볼 대회’에 참여하고, 함께 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총회의

- 일시: 8.21(주일), 교중미사 후.
- 대상: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 내용: 주일학교 운영방안

8월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8.27(토) 오후5:00.

본당 평협회

- 일시: 8.28(주일), 교중미사 후.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본당 ‘평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신심생활의 근본입니다.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34	215	166	1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찬 미카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다음주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익 마르띠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정수한 베드로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애찬 봉사자

금주	김수희, 김수연, 최선윤
차주	김경희, 김인자, 안혜진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8/14	75명	340불	2,020불
홍순익, 정지현, 김창식, 김대연, 고영방, 조지연, 차호섭 (총 7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임창주 베드로
M: 913.961.5166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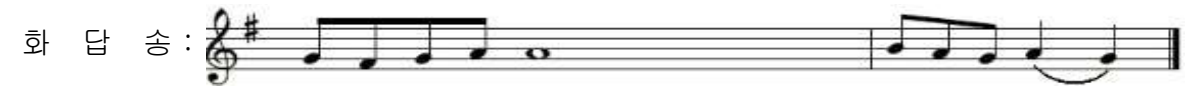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새로운 생명의 파스카 잔치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주시어 아드님의 십자가상 제사에 결합시키시고, 하늘나라의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성화해설

그리스도와 부자 청년 (하인리히 호프만, 1889년, 뉴욕 리버사이드교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루카 13,24)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의탁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돌보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6,18-21

<그들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데려오리라.>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5-7.11-13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신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2-30

<동쪽과 서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쉐 마

사랑하는 이들을 훈육하는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은 바빌론 유배생활을 거치며 많은 것을 깨닫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유배가 하느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단순한 벌이 아니라 백성을 가르치는 채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당신과의 약속을 깨트리자 하느님께서 유배로 그들을 벌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독서에서 봉독한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를 채찍질하십니다.”(히브 12,6).

이스라엘 백성이 유배를 통해 깨달은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는 유배를 통해 하느님 백성의 범주가 넓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배를 통해 세상 곳곳에 퍼져 살게 되는데, 이는 하느님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유배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림으로써 세상 모든 이들을 당신께로 불러 모으고자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이는 오늘 1독서로 봉독한 제3 이사야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못 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이사 66,19).


오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자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예언서와 연관 지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이사야의 예언, 곧 유대인들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실패와 좌절을 상징하는 유배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벌로 인해 유배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유배를 통해 하느님의 계획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어로 “유배를 끌고 가다”(헉걸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강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만들다”입니다. 유배라는 단어가 계시와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삶 안에서 스스로의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 세상의 악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유배생활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우리가 빠져 있는 다양한 유배 사건들이 단순한 하느님의 벌이 아니라, 나를 타이르고 훈육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이기도 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물론,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손길을 느껴보려고 억지로 유배상황에 빠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의 탓으로 빠진 유배이든, 하느님께서 유배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묵상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 평소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더 깊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성인 말씀

**기쁨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그대가 가는 곳마다
항상 기쁨이 넘쳐흐르도록 애쓰십시오.**

- 복자 마더테레사 -

주춧돌

키프로스의 첫 영세자,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중에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자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여 파견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3,1-3

하느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가짜 예언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3,4-6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행원인 마술사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총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길을 왜곡시킬 셈이오?”라고 야단칩니다. 그 결과 어떤일이 벌어지고 총독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 13,7-12

키프로스는 본래 바르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르나바는 일찍이 키프로스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판 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을 관저로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로마의 고급 관리였고, 재산도 많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독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감동을 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문

놀라지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벽이 아니랍니다.
닫아 놓지 않았답니다.
좁긴 하지만,
문은 열려 있습니다.
놀라지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루카 13,24)